

마당예술동아리'어수선' 회원들의 이야기 [평가회의]

<어수선>

마당예술강사 _ 오지나

마당지기 _ 조현경

회원 _ 김성형, 김명순, 김태은, 김행화, 안선희, 조은영, 조형란, 황순녀

인터뷰 일자 _ 2022년 10월 24일

인터뷰 장소 _ 제물포 지하도 상가 문화공간

인터뷰 _ 미추홀학산문화원

Q. 마당예술동아리 활동 소감을 알려주세요.

조현경

공연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냥 수다떨고 의미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대본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처음 온 분들은 그 시간을 지루해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.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제가 좀 스파르타식이에요. 동아리원들이 오해없이 따라와줘서 고맙고 공연에서의 실수가 조금 아쉽지만 오랜만에 관객이랑 만나서 공연해서 좋았습니다.

김명순

무대에서 틀려서 충격이 오래 갔습니다. 장소가 수봉공원이라 가까워서 좋았고 야외 공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. 우리집은 왜 찍었을까,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공연에서 보니까 영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 아들이 “내 방은 언제와서 찍었데”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참 뜻 깊은 작품이었습니다.

조형란

올해 놀래 축제는 음식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 빙고 게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게 획기적이었고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먹거리가 있으니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체험도 재밌고 좋았습니다.

김성형

전에 안성, 평택 쪽에 주로 있었는데 이런 지역 축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. 풍물도 신명났고 대동놀이, 퍼레이드도 좋았습니다. ‘인천’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마인드이고 미추홀구 학산문화원의 노력과 결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들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 축제 문화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.

황순녀

처음에는 서먹했는데, 다들 너무 다정했습니다. 주제랑 동아리랑 잘 맞았고 우리 삶이 곧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연극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동아리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. 문화원에서 연습 할 때 마당지기랑 행화쌤이 차량지원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

김행화

신규 동아리원들이 들어와서 대화도 많이 하고 좋았습니다. 우리 얘기를 모아서 대본이 나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간식도 많이 챙겨와 줬는데 처음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김태은

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, 동아리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좋았습니다. 명순님이 올해 제일 긴장을 많이 해서 얼굴이 굳고 대사를 통째로 날렸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